

귀여운 마스크트 '아코'로 애고심 뽐뽐~



동국대 신입생 키트.

저희 법학과
학생회에선 학과 선물을
따로 준비했어요! 학과 특색을
살린 미니 법전과 에코백으로요.
저는 이런 키트를 받지 못했지만 새터도
못 가고 입학식도 제대로 못해 아쉬울
올해 입학한 후배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학생회에서 별도로
준비했어요.

— 박성민(동국대 법학과
2학년)



법과대학 학생회가
따로 준비한 환영 선물.

동국대를 대표하는 마스크트 '아코(아기코끼리)'. 다양한 문구용품에 쓰이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당연히 신입생 키트 속에도 아코가 가득! 캐릭터 인형은 물론 대학에서도 많이 쓰는 노트와 투명파일, 달력, 스티커, 학교 마크 배지 등이 포함돼 있어요. 아! 환경보호를 위한 텀러도 빼놓을 수 없죠. 보기 좋고 쓸 일 많은 제품들로 세심하게 구성했답니다. 반응이 궁금해 살짝 들어가본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하하 호호' 반응이라 뿌듯했어요~^^

내년 선물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할게요! 동국대

대학생 라이프

대학에 가면 양손이 무겁다?

신입생 환영 선물 열전

대학별 입학 설명회가 한창이다. 입학하고 싶은 대학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며 설레는 것도 잠시, 성큼 다가온 입시에 긴장감이 크다. 그럴 때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주는 선물을 미리 살펴보고 숨을 돌려보면 어떨까?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대학의 환영을 받는 그날을 그리며 다 같이 힘내보자.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성균관대 2021
신입생 키트.



선물을 준비하는
총학생회의 모습.

성균관 지킴이 '명륜이'와 '울전이'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신입생들의 새내기 생활이 예년과는 좀 다르네요. 성균관대는 캠퍼스 생활을 만끽하지 못하는 신입생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생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신입생 입학 축하 키트를 준비했어요. 학교 마스크트 명륜이와 울전이의 캐릭터 인형과 후드티, 각종 학교 기념품, 학교생활의 길잡이 학교 안내 책자와 동아리 소개 자료, 그리고 '이 시국'에 꼭 필요한 KF94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한데 모았죠. 신입생들이 어떤 선물이 좋을지 고민하고 물품을 준비하느라 애산 선배들의 노고도 기억하며 맘껏 즐겨주면 좋겠어요~ 내후년에는 신입생 선물을 준비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몫이 될지 모르겠네요^^

— 성균관대



대학생들의 생활은 10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10대들은 대학생 형, 누나들의 생활이 궁금할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미래니까요. 요즘 대학생들의 다양한 생활을 전합니다. 궁금한 대학생들의 문화가 있다면 이메일(asjung@naeil.com)로 제보해주세요. _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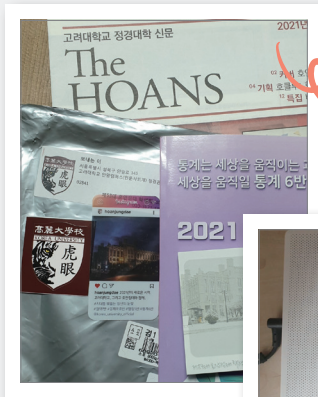
학교에서 환영받는 느낌, 잊지 못할 거예요!

건국대 마스크트
'쿠'가 새겨진
입학 선물.



건국대의 상징이 황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황소 캐릭터가 그려진 학교 '굿즈'가 많은 이유입니다. 신입생 선물로 파일, 책 받침대, 에코백을 받았는데 내용물보다는 박찬 느낌에 감동했어요. 학교에서 환영받는 느낌!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신청한 후 키트의 존재를 잊을 때쯤 선물을 받아서 더 서프라이즈 선물 같았죠. 저희 학교 마스크트 '쿠'는 인기가 많은데 받은 선물 중에 특히 '쿠'가 찍힌 에코백이 마음에 들어요. 에코백 안에 학교 기념품 가게의 '쿠' 굿즈들을 모아 세트로 넣고 다닐까 생각할 정도로요. 환영 편지도 들어 있었어요. 신입생 모두에게 발송된 같은 내용의 편지였지만 제겐 특별했어요. '이제 내가 진짜 건국대 학생이구나' 싶어 뿌듯했죠. 후배들도 지금을 잘 견뎌내고, 내년에 이 기쁨을 누리길 응원할게요~

_ 이동혁(건국대 지리학과 1학년)



고려대
입학 키트.

받자마자
노트북에
붙인 스티커.



학교 스티커 받자마자 노트북으로 직행~

고려대 신입생 키트를 받자마자 찍어둔 '안박싱' 사진을 공개합니다! 제가 신입생 선물을 받은 건 지난 2월 중순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키트를 받고 고려대 학생이 된 걸 확실히 실감했죠. 키트 안에는 대학 스티커, 포토카드, 통계학과가 소속된 정경대학 단과대 신문 등이 들어 있었는데, 포장을 뜯자마자 대학 스티커는 노트북에 붙이고, 포토카드는 지갑에 챙겨 넣느라 부산을 떨었어요^^ 학과 자료집, 단과대 신문을 읽으며 선배들의 얼굴을 눈에 익히보기도 하고 학교생활도 그려보니 설렘이었어요. 얼마 전엔 학교에서 공지가 왔어요. 코로나19로 학교생활을 별로 하지 못한 21학번 새내기들을 위해 응원 키트를 보내준다고요. 두근두근~ 후배분들 보여줄 응원 키트 '안박싱' 사진도 남겨놓을게요.

_ 김재훈(고려대 통계학과 1학년)

인기 있는 입학 축하키트 서둘러 받아요~

이화여대에 입학하면 합격 키트와 입학 축하 키트를 따로 받아요. 합격 키트엔 액자형 케이스, 합격 증서, 합격 축하 카드, 학교 일러스트 엽서와 책갈피가 들어 있고, 가끔 성적 우수자에게엔 장학증서도 함께 오죠^^ 이와는 별도로 입학 축하 키트 '웰컴투이화'는 입학식에 참가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수령으로 바뀌었는데 특히 올해 기념품은 인기가 많아서 2주 만에 동이 났죠. 내년 입학생들도 캐릭터 인형, 비건크림, 지퍼백, 마스크 끈, 탁상달력, 걱정인형 등 특색 있는 기념품을 받고 싶다면 꼭 서두르세요! @

_ 이화여대



'웰컴투이화'
입학 축하 키트.



합격 키트.